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경제윤리 비교*

황 의 서**

논문초록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인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흠도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반대로 아퀴나스는 흠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완전하고, 아퀴나스에 의하면 불완전하다. 서로 다른 신학적 관점은 경제윤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의 완전성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인정하는 자유시장경제 이론의 기본 철학이다. 그러나 인간의 불완전성을 주장하는 아퀴나스는 국가간섭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모든 선은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경제윤리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혼과 육의 관계에 대하여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혼과 육은 분리되어 있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아퀴나스는 혼과 육을 하나의 결합체로 보고, 육이 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아퀴나스의 주장은 물신주의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고, 자본이 종립적이 아닌, 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판단하게 한다.

새로운 줄에서 시작하도록 의존하기 보다는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도덕성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영적 교제에 있다는 두 사람의 주장은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새로운 토론의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경제윤리, 인간론, 혼과 육.

* 본 논문은 2012년도 연구년 기간 동안 서울시립대학교의 연구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3년 8월 19일 접수, 9월 10일 최종수정, 2014년 2월 21일 게재확정

I. 서문

서양에서 경제학은 기독교 가치관을 기초로 발전되어 왔다. 경제윤리는 경제행위 속에 내재된 규범들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서양에서 발달한 경제학과 경제윤리 역시 기독교와 분리되어 이해하기 어렵다. 유럽의 학문발전과 사회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기독교에 기초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이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보다 870년 뒤에 태어난 사람으로 서로 다른 시대에 생존했지만, 그들은 기독교에 기초한 서양 철학을 완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의 철학을 계승했다면,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 경제학에 미친 영향이 거의 논의되고 않고 않지만, 공정가격과 자연가격에 대한 아퀴나스의 주장은 경제사상에서 인정받고 있다. 두 사람은 경제학과 경제윤리 발전에 실제로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사람의 사상 중에서 경제윤리와 연관되는 부분들을 밝혀내고, 두 사람의 주장들이 경제학과 경제윤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기독교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점들에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밝히려고 노력한다. 경제윤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주장들을 밝혀내고, 그 의미와 연관성을 현대 경제학 측면에서 재해석하는 것은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도 세계 경제위기가 무분별한 파생상품을 만들어낸 미국 금융인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경제윤리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경제윤리를 논하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관점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토론의 장을 열어갈 것이다.

본 연구는 두 사람이 발표한 문헌들을 기초로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경제학의 범주가 신학과 철학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기독교적 세계관의 차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신국론’에서 기독교 교리에 기초한 천국도성의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아퀴나스는 60권에 걸친 방대한 저서 ‘신학대전’에서 기독교 교리와 의문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고 있다. ‘신국론’과 ‘신학대전’에 서술된 내용들 중에, 경제윤리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선택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인간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도성과 천상도성을 구분하고, 오직 천상도성을 추구하는 인간만이 윤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¹⁾ 윤리적 인간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현하는 사람이다. 지상적 인간은 세상의 법칙들을 준수하면서 스스로를 정의롭고,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착각이라고 본다. 지상적 인간과 천상적 인간의 구분은 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구분된다. 두 인간의 영은 서로 다른 원천을 가지고 있다. 천상적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이를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지상적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인간의 영에 안주하면서, 영적 타락의 길을 걷는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경우 학식이 많고,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고 해도, 그의 행위는 비윤리적이고, 타락으로 향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되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저마다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모든 것은 결국 선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이는 생각, 마음, 행동, 조직, 제도 등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포한다.

1) 아우구스티누스는 서로 다른 “두 사랑이 두 도성을 이루었다”라고 주장한다(Augustinus, 14권: 1537). 인간적 사랑은 지상도성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천상도성을 만들었다.” 천상도성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Augustinus, 14권: 1539).” 천상도성에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이루고, 완벽해진다.

인간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장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영혼 자체가 곧 제사가 된다(Augustinus, 10권: 1009).”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별하고,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든 이웃을 향한 것이든 자비의 행업은 하느님께로 귀결된다. … 그리하여 구속된 저 도성 전체가, 다시 말해 성도들의 단체와 사회 자체가 보편적 제사처럼 하느님께 바쳐지기에 이르는 것이다(Augustinus, 10권: 1011).” 인간의 존재와 인식과 사랑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창조주인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 인식, 사랑을 회복하면, 인간은 자연본성과 일치하고, 진리 안에 거한다. 그리하면 인간은 “신이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Augustinus, 9권: 983).”²⁾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면, 인간의 자존감은 높아진다.

아퀴나스는 인간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와 다른 주장을 펼친다. 인간의 육체가 선하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반박한다.³⁾ 첫 인간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았기 때문에, 인간이 회복되면 완전해질 수 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보지만, 아퀴나스는 첫 인간은 흠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본질에 의해서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이며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 46).”에 기초하여 “첫 인간은 그의 일반적 삶의 상태에서는 하느님을 본질에 의해서 보지 않았다(Aquinas, Vol. 13: 221)”고 주장한다. 첫 인간 아담은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흠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아무리 회복되어도 선한 의지를 갖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죄의 성품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자신의 영적 모습을 두었지만,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동일할 수 없고, 유사할 뿐이라고 그는 본다.⁴⁾

종합해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회복될 수

2)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한복음 10:35)”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용하고 있다.

3)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영혼이 죄를 지어 저런 신체에 갇혔다고 한다면 그보다 멍청한 말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지적한다(Augustinus, 11권: 1201).

4) 아퀴나스는 인간과 본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왕의 모습이 은화 안에 있는 것과 같다(Aquinas, Vol. 13: 149).”고 주장한다.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회복된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아퀴나스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주장한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실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국의 삶은 천국에서만 실현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인간은 불완전한 모습으로만 존재한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 법, 제도 등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인정되는 것이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에서도 아퀴나스는 악에 대한 존재와 판단을 쉽게 내리고, 이를 시정하려는 제도나 법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선과 악을 영적 문제로 보기 때문에, 신증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자신의 영이 창조주의 영과 분리되어 있는지, 연합하여 있는지는 오로지 개인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가 개인의 외형적 행동의 결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특히 그 행위의 유용성에 기초하여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인간의 판단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하신 창조주의 판단을 능가할 수도 없고, 많은 경우 알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안에서는 선한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악한 행동을 허락하고, 이것이 실행될 경우, 인간적 판단으로 이를 막는 것이 오히려 악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악한 행위들이 오히려 윤리적 일 수도 있다. 선과 악 또는 윤리와 비 윤리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퀴나스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회나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하여 개인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는다. 개인의 영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개인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반면,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악한 상태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아퀴나스는 국가간섭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혼과 육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을 많이 계승하고 있다. 영과 육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하고, 영이 모든 물체와 현상들의 원인이라고 본다.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인간이 눈으로 태양을 직접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그 빛을 항상 느낄 수 있듯이, 신의 존재도 인간이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진리를

통하여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마치 “음식은 먹지 못하고 냄새만 맡는 것 (Augustinus, 1990: 222)”과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한다. 신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다. 신은 항상 살아 있기 때문에, 진리 역시 살아 있는 것이고, 인간의 영혼도 역시 살아서 신의 진리에 붙어 움직인다. 진리는 외부로부터 인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인간 정신의 재판관이요 지도자 역할을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에게 들어와 인간의 혼을 만들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과 인간 안에 창조한 혼은 서로 동일하다고 본다. 영혼에서 이 둘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와 살아 있는 혼이 된 것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 아퀴나스는 동의한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영과 혼을 기능 측면에서 구분한다(Aquinas, Vol. 13: 109).⁵⁾ 혼은 영과 육을 서로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육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의 혼인데, 이 혼은 일방적으로 성령의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영도 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간의 혼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다. 예로,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성장혼, 감각혼, 지성혼을 가지고 있다 (Aquinas, Vol. 15: 181).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성장혼이 작용하고,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는 감각혼이 중요하다. 성장혼과 감각혼은 인간의 영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지성혼은 하나님의 영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 가도록 한다. 지성혼은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선을 추구하는데 필요하다. 감각혼과 성장혼이 지성혼을 외면할 경우, 인간의 육체적 욕망과 이를 만족시키려는 인간의 이기적 행위들이 경제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하면 경제사회는 창조주의 질서를 이탈하고, 불균형을 이루고, 윤리적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크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지성혼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시키려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과 혼의 일치를, 아퀴나스는 영과 혼의 분리를 주장한다. 영혼과 물체의 관계에서도 서로 주장이 다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과 물체의 분리를

5) 아퀴나스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고린도전서 15: 45)”에 기초하여 옛 아담은 살아 있는 혼 즉 생물적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은 영적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Aquinas, Vol. 13: 109)

주장하는 반면, 아퀴나스는 영혼과 물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아퀴나스는 영혼과 물체가 서로 결합된 대표적 사례로 인간을 언급한다. 인간은 육체라는 물질과 영혼의 결합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많이 계승한 아퀴나스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보이는 세계를 바로 잡으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행위는 영적 상태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예로, 혼이 물체 안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상품을 만들면서 자신의 혼을 그 상품에 투입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그 혼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체의 접촉이나 물질의 교환 속에는 혼의 교류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혼의 교류는 마치 불이 옮겨가는 것과도 같다. 두 물체가 접촉할 경우, 그 안에는 열기라는 다른 것들의 교류가 형성되는데, 이는 “물체적 질료에 들어 있는 이 불의 형상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옮겨가는(Aquinas, Vol. 15: 63)” 것이다. 인간이 물체를 접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존재하는 혼도 접하는 것이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이 섭취한 영양물도 인간의 본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인간의 육체 속으로 분해된 영양물은 그 형상을 잃고 지체들의 구조로 옮겨간다. 구조는 인간의 참된 존재에 속하기 때문에, 영양물은 인간의 참된 존재로 변모하는 것이다. 인간의 형상과 질료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이 섭취하는 물질은 결국 인간의 형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결국 혼에게도 좋은 것이다. 반대로 나쁜 음식을 섭취하면 육체가 약해지고, 혼도 약해 질 수 있다. 건강한 혼의 유지는 건강한 신체의 관리를 요구한다. 양질의 상품을 만들고 소비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이는 결국 인간의 혼도 건강하게 만들게 된다. 한편 부패한 상품이나 부도덕한 상품을 만들고 소비하는 행위는 인간의 육체와 혼을 모두 다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사람들이 훔친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하게 될 때에 그 혼도 부정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의 행동은 비도덕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악령이 한 사람의 혼에 침투하여, 상품거래나 접촉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악령이 전달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혹될 수 있다. “영적 본성이 물질적인 것에 침투해 들어가 있을 수 있다(Aquinas, Vol. 15: 65).” 물질적 교류는 영적 교류를 동반한다. 아퀴나스는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행위를 영적 행위이고, 동시에 윤리적 행위로 이해된다.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경제인들의 혼이 건강해야 한다. 혼

이 타락하면 비윤리적 경제행위가 나타나고, 경제도 타락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행위는 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아퀴나스는 본다.

종합해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경제윤리의 회복을 근본적으로 영적 회복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아퀴나스는 물질적 회복이나 제도적 변화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예로, 법을 제정하여 잘 못된 경제행위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갈 때에, 영적 회복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퀴나스의 주장은 당시 지배적이던 플라톤이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과는 다르다. 그들은 물질세계와 영적세계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졌지만, 아퀴나스는 혼과 물체가 동시에 만들어졌고, 하나의 결합체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물질세계를 영적세계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영과 혼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결합체이고, 경제행위는 인간의 혼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퀴나스의 주장은 경제행위를 영적행위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 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영적분별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건강한 혼을 유지하려면 경제행위의 동기, 과정, 결과에서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과 분리된 혼은 물질로 인하여 더욱 타락할 수 있는 것이다.

아퀴나스의 주장은 물질로 인한 영적 타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고 있다.⁶⁾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본의 풍요로움이 인간의 도덕적 타락을 유발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아퀴나스는 자본의 풍요로움이 인간의 혼에 영향을 주고, 도덕적 타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6)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은 자의 혼은 이 세상과 연관을 끊은 상태라고 보지만, 아퀴나스는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서 자신의 친척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보고, 간청하는 것을 보면 혼이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천사들이 이 세상의 일을 인식하고 간섭하는 것과 같이 혼도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본다(Aquinas, Vol. 12: 163). “The souls of dead can be concerned about the affairs of the living”(Aquinas, Vol. 11: 163). 아퀴나스는 혼의 힘과 영향력을 인정하려고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품을 노동가치가 아닌 사회적 성격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이를 숭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상품이나 화폐가 사람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소유한 것으로 착각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을 신으로 모시는 물신주의(物神主義)의 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Marx, 자본론: 100).

3. 사랑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두 도성은 서로 다른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하느님을 멸시하면서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이 지상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이르는 하느님 사랑이 천상 도성을 만들었다(Augustinus, 14권: 1537).” 창조주에 대한 사랑은 그분이 원하는 질서를 만들어 가고,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원하는 질서를 만들어 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영원한 진리와 참된 사랑을 안다(Augustinus, 11권: 1217).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윤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창조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사랑한다. 인간적 차별이 없고, 화해와 공평을 조성한다. 한편 인간적 사랑은 사사로운 사랑, 이기적 사랑으로 모두를 품지 못한다. 부분적 사랑만을 완성시킨다. 이기적 사랑은 사랑으로 인한 사회의 분열, 차별과 편중 등의 현상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직 인간적 생각과 마음에 기초한 사랑은 오만과 탐욕과 인색을 절제하지 못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사랑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을 실현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올바른 사랑은 올바른 의지를 바탕으로 올바른 행실과 결과를 가져오지만, 사악한 사랑은 사악한 의지를 바탕으로 부도덕한 행실과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Augustinus, Vol. 14: 7). 하나님 사랑이라는 큰 중력이 우주만물을 주관하지만, 인간은 자기사랑을 기초로 이러한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에 이끌리게 된다. 사랑은 힘을 동반한다. 만일 창조주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악하게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선하게 살아가는 덕성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이다(Augustinus, Vol. 15: 1641).” 창조주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인간 안에 들어오고, 만물에 전달되는 것이다.

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선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인간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으로 치유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으로 변한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다(Augustinus, Vol. 11: 1217).”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회복시켜간다고 본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다고 본다. 인간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할 수는 있지만, 그

것과 동일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흠으로 만들어진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순전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기적 사랑의 발동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아퀴나스는 인간적 사랑은 항상 불완전한 상태에 있고, 이기적 사랑은 바로 이러한 불완전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주장하는 경제행위의 원동력이 되는 이기심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것이고, 아퀴나스의 입장에서 보면 악할 수 있다. 이기심에 기초한 경제행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방임을 통하여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아퀴나스의 입장에서 보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4. 행복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행복은 크게 세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첫째, 행복은 인간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행복한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Augustinus, 7권: 705).” 영원한 행복은 오로지 끝없이 행복한 생명을 베푸시는 분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 이외의 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주지 못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한다. “하느님 한 분에게서만 영원한 행복이 언약되어 있는 까닭이다(Augustinus, 1권: 213).”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영위하고, 불순한 영들과 타협하지 않는다. 행복은 선의 목적이고, 악으로 부터의 이탈이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이 없는 중용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욕구와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고, 어떤 부족함도 없는 사람이다. 항상 하나님이 주는 새 생명과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이다.

둘째로 행복은 상태가 아닌 진행형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낙원에 있던 인간보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현존의 인간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복은 비교 가능하고, 주어진 행복 보다는 쟁취하는 행복이 더 크

다. “현세의 선을 향락하는 면에서 본다면 낙원에 있던 최초의 인간이 사멸하는 취약한 인생에 처한 어떤 의인보다도 행복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본다면, 지금 아무리 심한 육신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인간도 낙원의 저 인간보다 더 행복하다. 그에게는 지존한 하느님께 참여하면서 아무 시련 없이 천사들과 교분을 누리리라는 희망이 있고, 또 그것이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대신 최초의 인간은 낙원의 큰 행복을 누리면서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불확실 상태였다(Augustinus, 11권: 1173).” 행복은 사랑의 결과이기보다는 사랑하는 행위 그 자체가 곧 행복이다. 소유하고 있어도 사랑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은 창조주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창조주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인간 안에 들어오고, 만물에 전달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사회에 전달하는 올바른 행실이 행복을 가져다준다.

셋째로 행복은 정확한 인식의 결과이지, 느낌이나 상황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과 일치됨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인지한다. 자신의 삶이 진리 안에 있을 경우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룬 부와 명예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행복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행복은 지적, 의지적인 것을 포함해서 감정적 즐거움, 기쁨도 포함한다. 행복은 인간이 만들어 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안에서 느끼는 기분이다. 그 기분은 기쁨, 즐거움 등 다양한 형태로 인지되지만, 포괄적으로 행복하다고 표현된다. 온전히 행복한 삶은 정신의 완전한 포만이다(Augustinus, 2010: 66). 인지하지 못하는 행복은 불가능하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느낌을 알게 하고, 이를 추구하게 만든 것이다.

한편 아퀴나스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일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아퀴나스는 행복을 이성적 행복과 지성적 행복으로 구분한다. 이성적 행복은 불완전한 것으로 현세 삶 안에 있으며, 지성적 행복은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데 있다(Aquinas, Vol. 16: 283). 인간은 목적을 인식하고 행할 수 있고,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는 이성의 결과이다. 이성을 가지고 추구되는 행복은 불완전하다. 인간이 “이 세

상 삶에서 행복의 어떤 분유를 갖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삶에서 완전하고 참된 행복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Aquinas, Vol. 16: 333).” 행복은 완전하고 충족한 선인데, 이 세상에서 악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인간의 생명도 영구적이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은 불가능하다. 현재 삶의 선들은 지나가는 것들이다.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데 있기 때문에 신체에 의존하지 않고, 영혼의 행복을 의미한다. 완전한 행복은 인식되지 못할 수도 있다.⁷⁾ 불완전한 행복을 내포하는 이성적 행복과 완전한 행복을 내포하는 지성적 행복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로 대립할 경우 이성적 행복은 불완전한 선으로 분류된다.

아퀴나스는 물질을 추구하는 경제행위는 불완전한 행복을 추구한다고 본다. 권력, 명예, 재물, 쾌락 등은 불완전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은 불가능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인정한다(Aquinas, Vol. 16: 333).”⁸⁾ 이 세상에서 사람은 동일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하여 더 준비된 사람만이 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행복을 추구하거나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⁹⁾ 또한 음식이나 주택과 같은 자연적 재물이나 화폐와 같은 인위적 재물 모두 인간의 자연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다. 인생의 도구들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이 재물에 있을 수 없다(Aquinas, Vol. 16: 127).”

종합해보면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행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 일치를 인정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완전한 행복은 더 이상 욕구가 없는 상태, 완전한 선이 이루어진 상태, 더 이상 조건이 필요 없는 상태이고, 이는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태이다. 인간이 어떤 것을 갈망하는 상태

7)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다. “이성이 없는 모든 것도, 보편적 선으로 자신을 펼쳐가는 하나의 이성적 의지, 즉 하느님의 의지에 의해 특수한 목적들로 움직여진다(Aquinas, Vol. 16: 75).”

8) 대다수의 행복과 각자 행복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벤탐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기초가 된다

9)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행복을 누린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각 사람마다 행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는 기수적 행복론의 기초가 된다 (Aquinas, Vol. 16: 377).

이면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은 욕구를 전적으로 쉬게 하는 완전한 선이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의지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행복하다. 인간 삶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행복은 인간이 만들어 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일하는 상태이다. 하나님과의 합일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 안에서 회복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행복을 인간의 의지와 이성으로 추구될 수 있는 불완전한 행복과 하나님의 의지로 추구되는 완전한 행복으로 구분한다.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불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게 된다. 특히 물질로 인한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은 불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윤리적 경제행위를 통하여 덕을 쌓아갈 수는 있지만, 덕은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선한 기술일 뿐이다. 기술을 연마하다 보면 행복에 도달하기 쉬워질 수 있지만, 이는 겉으로 보이는 유사성이지만, 완전한 행복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행복의 소유자이고, 원인 제공자이다. 육체적 욕구충족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경제행위는 불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5. 도덕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삶의 영역에서 준수되어야 할 영원한 진리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다. 도덕은 선을 이루기 위한 사용도구의 역할을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 만족, 행복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면 선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 악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면 선이고, 인간 중심의 선을 추구하려면 악이다. 선을 추구하는 도덕이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다. 도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선과 악은 자연본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와 욕망 때문에 발생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모든 피조물은 선하게 창조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악한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권능을 즐기면서, 자기 스스로의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면 악하다.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하나님과 합일하지 않는 것은 부패한다. “부패는 자연본성을 손상하고 따라서 자연본성에 상반된다(Augustinus, 12권: 1245).” 부패는 자연본성의 온전함, 아름다움, 건강함, 기운들을 빼앗는다. 피조물이 부패하도록 만들어진 자연본성은 선하다

(Augustinus, 12권: 1249). 부패는 악한 상태를 알려주면서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음식이 부패하도록 방치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악하지만, 음식이 부패하는 것은 자연본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선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윤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서로 차이를 가진다. 인간이 만든 윤리는 지상도성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진다. 인간이 만든 윤리는 인간 자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윤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제국이 몰락한 이유는 윤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윤리가 진리와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로마제국에는 사회적 윤리와 질서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참다운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윤리가 한계를 가진 것이다. “덕목이 다른 이유로 추구되지 않고 오직 덕목 자체로만 연관된다면 진실하고 고상한 덕목이라고 여길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경우는 스스로 으스대는 오만한 덕목일 터이고 따라서 덕이 아니며 오히려 악덕이라고 단정 지어야 한다. 육을 살게 만드는 것이 육에서 오지 않고 육위에 있듯이,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것은 인간에게서 오지 않고 인간위에 있다(Augustinus, 19권: 2245).” 윤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결합하지 못하면 부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인간이 만든 윤리는 부패의 기간을 연장시킬 뿐이지, 부패 자체를 방지할 수는 없다. 인간이 만든 도덕적 가치관들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윤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의지가 활성화 되는 것이다. 윤리가 완벽해지려면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혜롭게 관찰하면 그 분의 뜻이 보인다. “모든 기적은 인간을 위해 일어나는데 그 어느 기적보다 위대한 것은 인간이다(Augustinus, 10권: 1037).”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 안에 있고, 당신을 드러낼 때에 인간들이 견디어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낸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본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창조주로 모셔야 하고, 우리가 진실한 것을 알려면 하느님을 교사로 모셔야 하며, 우리가 지복에 이르려면 내밀한 감미로움을 베풀어 주는 분으로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Augustinus, 11권: 1209).” 하나님을 내면에 모시고, 그 분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행동하는 사람만이

선하고, 윤리적이다. 하나님을 외면한 윤리는 인간적이고, 완전하지 못하다.

아퀴나스 역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보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되어야 하고, 행위의 과정도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 존재해야 한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기초한 생각으로부터 나와야 하지, 인간의 감정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도덕적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아퀴나스는 인간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는 네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Aquinas, Vol. 18: 18). 첫째, 본성에 기초한 속성이다. 선과 악은 본성에 충실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달려 있다. 자연사물의 선은 그 형태와 내용의 일치로 알 수 있고, 도덕적 행위의 선함은 객관적 일치로 나타난다. 예로, 도덕적인 사람은 그 자체로 선한 행동을 한다. 즉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악은 본성을 상실할 경우 발생한다.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형태를 이탈하는 것은 악하다. 둘째, 적합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존재의 특수성이다. 선하게 존재하는 것과 본성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선함과 존재는 동의어이다. 존재의 특수성을 실행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선한 것이다. 셋째, 상황에 따른 것이다. 상황은 행위자에게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고, 도덕적 행위는 상황을 고려한 행위이어야 한다. 상황에 맞지 않는 행위는 악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영원히 선함을 추구하는 원인이 만들어 내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덕적 선은 영원한 법칙에 의존하는 것이다. 인간 안에 거하는 이성의 빛은 영원한 법칙을 반영하면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 선을 이루려는 인간의 거룩한 이성이 만들어 내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한편, 목표로 했던 결과들이 추진과정에서 힘의 결핍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을 경우, 악한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도덕론은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도덕론 속에 존재하는 공통된 특성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자연본성을 유지하는 것은 선하고, 자연본성을 상실하는 것은 악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선하다. 특히 사물이 만들어진 특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선하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

은 선하다. 넷째, 도덕성은 선을 이루기 위한 사용도구이기 때문에, 인간을 편하게 만든다.

III. 경제윤리에 미친 영향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주장들을 살펴 본 결과, 기독교 가치관의 큰 틀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경제행위의 윤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혼과 물질의 관계, 사랑, 행복 등에 관해서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경제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경제윤리를 이해하는데, 두 사람의 관점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행위의 윤리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경제행위를 하나의 윤리적 행위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가 제기하는 윤리의 네 가지 특성, 자연본성, 자연질서, 사랑, 편의 등을 기초로 경제행위의 윤리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자연본성의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윤리적 행위이다. “어느 자연본성도 악한 것이 아니며, 악이라는 명사는 선의 결핍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Augustinus, 11권: 1195).” 심지어 독도 선하게 만들어 진 것으로 오히려 사용하면 건강에 좋은 약품으로 변한다. 반면 좋은 음식이나 음료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해로울 수 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 31).”라고 하신 것은 세계는 오로지 선한 자연본성들로 충만했다는 것이다. 자연본성을 외면하는 것은 창조주의 의지를 외면하는 것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의 섭리는 사물들을 두고 어리석게 함부로 욕하지 말고 사물들의 유용성을 면밀하게 연구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유한다 (Augustinus, 11권: 1195).” 모든 만물 속에 감추어진 신의 섭리를 발굴하는 것이 자연본성의 회복이고, 윤리적이다.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를 찾으려고 노력한 대

표적인 도덕철학자는 아담 스미스였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경제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고, 국가들이 서로 교역을 통하여 더 큰 이익을 추구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식량을 제공하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도덕적 감각을 가지고 경제사회를 유지해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아퀴나스는 가치를 가격의 본성으로 이해하고, 자연본성의 회복을 위하여 상품가격은 성품가치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에서 상품가격이 상품가치를 능가하거나, 상품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두 다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¹⁰⁾ 공정거래는 가격과 가치의 일치를 요구한다. 경제윤리의 회복은 시장균형이 공정가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칸틸론(Cantillon)의 고유가격(Brewer, 1992)과 아담 스미스의 자연가격(Smith, 1937)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절대가격의 존재는 공정거래를 단속하는데 기준이 되고, 과다 가격책정으로 인한 부당 이윤취득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Friedman, 1980).

둘째, 우주만물은 자연 질서를 갖추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피하고 자신이 존재하기를 원한다. 나무들은 “공중을 향해 당당하게 새싹을 내밀고 다른 쪽으로는 땅에다 뿌리를 박고 거기서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어떻게든 자기 존재를 보존(Augustinus, 11권: 1213)”하려고 한다. 자기 존재를 고수하려는 행동들은 경제행위의 기본 원동력이기도 하다. 경제행위는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발생한 것이기 보다는 생명체가 자기 보존을 위하여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다. 홉스는 자기보존의 법칙을 인간이 가진 자연권으로 주장한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품을 교환할 때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만약 판매자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서, 구매자가 손실을 보았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¹¹⁾ 시장교환을 통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적절한 이익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질서에 속한다. 그러나 정보를 속여서 다른 사람의 손실에 기초한 이윤은 불균등한 이익분배구조를 가져오고, 자연질서를 왜곡시키는 원인이다.¹²⁾ 경제인들이

10) “It follows that the balance of justice is upset if either the price exceeds the value of the goods in question or the thing exceeds the price(Aquinas, Vol. 38: 215).”

11) 예로, 경주마를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픈 말을 파는 것이나, 건강한 식품 대신 썩은 식품을 파는 것은 속이는 거래와도 같다. 이러한 거래는 원상복귀 되어야 하고, 판매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Aquinas, Vol. 38: 225)

자연질서를 존중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만을 받으려는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불균등한 이익분배를 사라지고, 경제윤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셋째, 인간은 선한 사랑과 악한 사랑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선하게 살게 만드는 사랑이 진전하면서 악하게 살게 만드는 사랑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다(Augustinus, 11권: 1217).” 악하게 살게 만드는 사랑은 사탄으로 나오는 것이다. 한편 완전하고 참된 사랑은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창조주에게는 참된 영원과 영원한 진리와 영원하고 참된 사랑이 있다(Augustinus, 11권: 1219).”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치유되면, 인간의 사랑은 좌절을 모르며, 인식은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가 경제행위의 원동력이 될 경우, 경제행위는 최상의 윤리를 보장 받는다.

아퀴나스 역시 시장에서의 상품교환을 아름다운 사랑의 교환으로 이해하고 있다. 시장교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시장교환을 통하여 서로 필요한 상품들을 나누어 갖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불균형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증거라는 것이다.

넷째, 모든 사물들은 고유한 용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서로 다른 편의를 제공한다. 인간은 편익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누가 자기 집에 쥐보다는 빵을, 벼룩보다는 돈을 더 두고 싶지 않겠는가(Augustinus, 11권: 1181)?”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반문한다. 유용성과 편익에 따라서 가치등급이 다르고, 평가기준은 인간에게 귀속되어 있다. 이것이 관리자의 특권이다. 인간은 사물들을 비교, 평가하고 판단하는 주권을 가진다. 경제적 가치평가는 인간이 가진 특권이다. 이를 남용하면 안 되고 잘 활용해야 한다. 사물의 고유한 용도를 기초로 유용성이 확대되고, 편의가 증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상업행위의 목적은 서로 유익을 나누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동기와 결과는 선하다. 아퀴나스는 상거래에서 자연적으로 이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Aquinas, Vol. 38: 231). 특히 위험성에 대한 보상으로 이윤을 인정하고 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공공재와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상인은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12) “To practise fraud so as to sell something for more than its just price is an outright sin in so far as one is deceiving one’s neighbour to his detriment.”(Aquinas, Vol. 38: 215)

있다는 것이다. 윤리적 경제행위는 가치의 향상을 동반할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경제행위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가 제시하는 도덕성의 특성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경제행위를 하나의 윤리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경제윤리는 자연본성과 자연 질서를 회복시키고,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Augustinus, 19권: 2143). 경제행위는 모두가 더욱 지혜롭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선한 기술이다.

경제인이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부여되어야 하고,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장한다.

경제행위에 대한 긍정적 이해는 종교개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황의서, 2011) 루터와 칼뱅은 직업을 소명으로 인식하고, 특히 칼뱅은 상업행위를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슬리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것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공리주의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행복추구를 인생의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고, 이는 일차적으로 쾌락과 평안으로 볼 수 있다(Augustinus, 19권: 2141).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선은 두 가지 사물의 선들로 구성된다. 말하자면 영혼의 선과 육체의 선으로 구성된다(Augustinus, 19권: 2143)”, “모든 선을 향유하고 정신의 선이든 육체의 선이든 그 어떤 선도 결핍되어 있지 않다면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하겠다(Augustinus, 19권: 2145).”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정신적 행복과 육체적 행복을 구분하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아퀴나스 역시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에 있다(Aquinas, 신학대전 16: 55)”고

본다. 그는 행복을 지성적 행복과 이성적 행복으로 구분하고, 인간이 경제생활을 통하여 추구하는 것은 이성적 행복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인정(Aquinas, Vol. 16: 331)”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거짓일 수 없다(Aquinas, Vol. 16: 331.)”고 본다. 대다수의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자연본성적인 것으로 자연본성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지는 않는다고 그는 본다(Aquinas, Vol. 16: 331). 아퀴나스의 주장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선으로 강조하는 벤탐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공리주의에 필요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공리주의자로 분류되기는 어렵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공리주의자들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으로 보지만, 벤탐(Bentham)과 밀(Mill)은 행복을 쟁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Mill, 2012).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으로 이해하는데, 벤탐과 밀은 인간이 객관화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세상적 기쁨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간은 물질적 욕구 충족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본다. 벤탐은 행복을 강도, 계속성, 확실성, 원근성, 생산성, 순수성, 연장성 등 7가지 기준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산출 가능하다고 보았다(Stark, 1952). 밀 역시 행복을 효용이라는 개념으로 변환시켜서 객관화시키고 있다. 둘째,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을 진행형으로 보고 있는 반면, 벤탐과 밀은 상태로 보고 있다. 벤탐은 행복을 일정기간 동안 사람이 체험한 기쁨의 상태를 합한 것으로 본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하는 행위 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보는 반면, 벤탐과 밀은 사랑의 결과를 합해보면 행복이 산출된다고 본다. 벤탐과 밀은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소유의 많고 적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웃과 사회에서 올바른 행실을 함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지만, 벤탐과 밀은 올바른 행실의 결과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본다. 특히 밀은 행복을 효용으로 전환시키면서, 행위의 유용성 즉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행위를 판단하려고 한다. 셋째,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행복은 개인이 자신 안에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자신이 진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하여 행복된다. 행복은 하나님의 영이 내안에서 느끼는 기분이다. 경제적으로 아

주 어렵고 나쁘더라도 자신이 진리 안에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거지가 왕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다. 벤틀과 밀은 이러한 영적 수준에서의 행복보다는 상황과 결과에 의존하는 행복을 주장한다. 거지가 왕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아퀴나스 역시 행복에 대하여 벤틀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아퀴나스는 이성적 행복만으로는 참된 행복을 실현할 수 없고, 이성적 행복이 지성적 행복과 분리될 때에는 진리를 배척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경고한다. 아퀴나스 측면에서 볼 때 공리주의자 벤틀과 밀은 이성적 행복만을 강조하고, 지성적 행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¹³⁾

아퀴나스는 결과 중심의 공리주의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결과로 인하여 선과 악이 바뀔 수 없다고 본다. 결과가 좋다고 악한 행위를 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Aquinas, Vol. 18: 20.5). 선한 행위는 대체로 이웃과 사회에 유익을 주고, 악한 행위는 피해를 가져다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웃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이것이 선과 악의 절대적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아퀴나스는 주장한다. 선과 악은 이웃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위의 동기, 과정,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될 때에만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는 본다.¹⁴⁾

결론적으로 벤틀과 밀이 주장하는 공리주의는 행복 추구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가치관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행복이라는 개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결과나 상태에 의존하는 벤틀과 밀의 행복 개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과 비교해 볼 때에 매우 부분적인 것이다. 공리주의 사상의 발전을 위하여 행복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행위가 주는 기쁨과 행복은

13) 아퀴나스는 이 세상 삶에서 행복은 유사성이지만, 참된 행복 아니라고 본다. “이 세상 삶에서 행복의 어떤 분유를 갖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삶에서 완전하고 참된 행복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Aquinas, Vol. 16, 333).” 이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불완전하게 접촉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완전하고 충족한 선인데, 이 세상에서 악은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14) “As we have noted, each man’s actions have the quality of merit or demerit through being directed to another, whether another single person or the community. In both respects our acts, good or bad, are meritorious or otherwise in the sight of God(Aquinas, Vol. 18: 117).”

그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동기에서도 나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주장은 공리주의 사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3. 경제체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인간의 완전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의 영과 혼은 서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고, 그리하면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본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이 완벽해 질 수 있다. 인간의 자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닮았으면서 동시에,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나님 사랑과 각을 이룰 수도 있다. 만약 이들이 서로 대립할 때에는 인간 사회는 고통을 겪게 되고, 사회 곳곳에서는 불안과 불균형이 목격된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자기 사랑 간의 대립과 조화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인간의 자기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자유의지는 변증법적 작용을 한다(Augustinus, 1권: 77).” 자유의지는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하게 실현시켜간다. 자유의지는 인간 사회와 인간의 역사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스스로 절대자가 되고, 이로 인하여 자유의지 실현이 정당화 된다. 신의 섭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를 닮아 가도록 인도하고, 자유의지도, 사랑도 모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도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전쟁에서 잔혹한 행위와 패자에 대한 자비도 허용하면서 결국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Augustinus, 1권 1장). 인간은 다시금 진리를 찾아 순종하려하고, 역사는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혜는 인간의 내면에 있다. 결국 하나님 사랑에 이끌리어,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와 일치하게 된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영과 혼을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도, 혼으로 인하여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혼이 인간의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인간의 영혼은 불완전하게 된다. 혼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고, 단지 신의 유사품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쉽게 범할 수 있고, 이는 법과 제도를 통하여 보완되어 져야 한다

고 본다. 예로, 시장경제에서 탐욕을 기초로 판매자는 공정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고, 구매자는 공정가격보다 더 싸게 살려고 할 때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불공정한 거래를 피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고 아퀴나스는 본다. 첫째는 제도적 접근법이다. 공정가격보다 50% 많거나 적을 경우, 과다 이익이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법으로 제정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Aquinas, Vol. 38: 217). 두 번째는 윤리적 접근법이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더 싸게 사거나 더 비싸게 팔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은 이미 불법과 부정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¹⁵⁾ 경제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가격을 국가가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문제이다.¹⁶⁾ 사람들이 신성한 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 공정가격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인들이 스스로 마음을 바로 잡고, 자신들의 잘못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가는 영적 능력의 회복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차선책이고, 국민 스스로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플라톤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모두 동일하게 개인의 도덕성에 기초한 사회 건설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은 경제윤리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 인간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초로 한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한다. 인간의 이기심도 선한 것이고, 자본의 풍요로움은 인간의 영적 타락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도덕성의 원천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영적 교제에 있기 때문에, 경제인은 오직 영적 회복만을 추구하면 된다. 하나님의 섭리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실현되어진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아퀴나스의 입장에 따르면 자유로운 개인의 경제행위는 국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영과 혼이 분리되고, 욕심이 혼을 지배할 경우, 사람들은 공정가격보다 많은 가격을 받으려한다. 기회만 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상인들의 마음과 행동은 이윤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웃사랑과는 거

15) "To sell for more or to buy for less than a thing is worth is, therefore, unjust and illicit in itself."(Aquinas, Vol. 38: 215)

16) "because we cannot always fix the just price precisely"(Aquinas, Vol. 38: 217)

리가 먼 결과를 초래한다. 자본의 풍요로워지면 육체는 나태해지고, 혼이 타락하면서 도덕적 붕괴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지 못한다. 국가가 법과 제도들을 통하여 이러한 잘못들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자유방임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 개입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정의와 법과 제도는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로, 강도 집단도 공통된 인식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의를 실현해 간다고 주장한다. “강도때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집단도 두목 한사람의 지배를 받고, 공동체의 규약에 의해 조직되며, 약탈 물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분배한다(Augustinus, 4권: 433).”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간들로 구성된 집단 안에서는 어떠한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국가나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관들은 악이고, 위협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관점은 현대 경제사회의 논쟁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케인즈의 주장이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국가간섭은 일반화 되고 있다. 국가간섭은 소득흐름 측면에서 정당화되고 있지만, 윤리측면에서는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다. 아퀴나스는 시장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간섭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과 제도는 제도 이탈을 수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경제 불균형의 근본원인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 있다고 본다. 인간의 혼이 공정가격을 부인하려고 할 때에 경제균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영적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일치할 이룬 상태에서만이 자유 시장 경제는 완벽해지는 것이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나 구성원 개인들의 도덕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윤리적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없는 것이다. 사회나 국가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건강한 가는 개개인의 도덕성에 따라서 다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도덕적 규범들이 각 개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행동을 결정할 때에 공동체는 희망이 있다. 국가간섭은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모든 경제인들은 국가간섭 없이 스스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 갈 수 있는 영적 수준을 회복시켜가야 할 것이다.

IV. 결론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경제윤리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종합되어진다. 두 사람은 기독교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윤리의 근본적 관점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공통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인과 도덕인과 신앙인은 삼위일체이다. 도덕은 이성적으로 인식되는 가치관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 가치관은 도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주장하고 있다. 완벽한 경제윤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를 실현해가는 것이다. 경제윤리를 완성하려면 자연의 본성과 질서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이성적 판단과 함께, 영적 분별력을 요구한다. 영적 분별력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경제인은 결국 신앙인이고 동시에 도덕인이다. 경제인, 신앙인, 도덕인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특히 아퀴나스는 경제생활이 영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올바른 경제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환경의 개선도 요구된다고 그는 본다. 아퀴나스의 주장은 결국 루터, 켈빈, 웨슬리 등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쳤고, 경제행위를 하나의 신앙적, 도덕적 행위로 이해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경제행위가 신앙행위와 분리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경제인, 신앙인, 도덕인은 서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둘째,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라는 면에서 두 사람의 주장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의식주에 필요한 물질들은 삶에 필요한 도구들이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가 주장하는 행복의 개념들은 벤탐이나 밀이 주장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행복이 경제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행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축적을 최대 행복의 조건으로 이해하려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경제인에게 요구한다. 영적 분별력은 오성에 기초한 신체적 감각이 아닌, “훨씬 훌륭한 내적 인간의 감각(Augustinus, 11권: 1215)”이다. 영적 감각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알고, 진리를 찾아가게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를 인지하는 능력을 아담 스미스는 특별한 도덕감각이라고 칭하고 있다. 경제학자 마샬은 종교와 경제는 역사를 굴리는 마차의 두 바퀴와 같다고 주장하고, 종교적 영성이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 역시 프로테스탄티즘의 영성이 자본주의의 태생을 가져왔다고 본다. 또한 최근 미국 경제학자 바로는 영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각국의 경제발전 차이를 설명하려고 한다.

경제윤리에 대한 차이점은 인간과 영혼육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논의되어진 차이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는 다른 경제체제를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완벽한 신적 존재로 이해하지만, 아퀴나스는 흠으로 만들어진 불완전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완벽해 질 수 있고,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완벽해 질 수 있다. 이는 개인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기초가 되고 있다. 한편 아퀴나스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국가의 활동을 주장한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개인자유주의, 아퀴나스는 국가간섭주의의 옹호자로 구분될 수 있다.

둘째, 혼과 육의 관계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혼의 일방적 우월적 관계를 주장하지만, 아퀴나스는 쌍방관계를 시인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육의 상태가 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아퀴나스는 육의 상태에 따라서 혼의 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 따르면 선하거나 중립적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신의 축복일 수 있다. 돈으로 인한 타락은 돈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마음, 욕심 때문이다. 인간의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 돈이 욕을 먹는다. 한편 아퀴

나스는 돈이 인간의 마음을 타락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적 풍요로움이 육체적 안락함을 가져다주고, 혼의 타락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의 풍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아퀴나스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위험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도덕적 타락과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나 국가가 개입할 수 있지만, 이는 차선의 방법이고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영적회복이 추구되어야 한다.

결국 영혼과 물질 간에 무엇이 먼저이고, 서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사람들의 영적 분별력과 도덕성도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경제발전과 경제윤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황의서 (2011). “루터, 칼빈, 웨슬리의 경제윤리.” 『신앙과 학문』. 16(2). 285-312.
- Aquinas, T. (1970). *Summa Theologia*. Vol. 11. Suttor T. Translation. Man. London: Blackfriars.
- _____ (1963). *Summa Theologia*. 12. Durbin P. T. Translation. Human Intelligence. London: Blackfriars.
- _____ (2008). *Summa Theologia*.. Vol. 13. 김울 역. 정의채 감수. 『신학대전13』. 서울: 바오로딸.
- _____ (2009). *Summa Theologia*.. Vol. 15. 김정국 역. 정의채 감수. 『신학대전15』. 서울: 바오로딸.
- _____ (2000). *Summa Theologia*.. Vol. 16. 정의채 역. 『신학대전16』. 서울: 바오로딸.
- _____ (1966). *Summa Theologia*.. Vol. 18. Gilby T. Translation. Principles of Morality. London: Blackfriars.
- _____ (1975). *Summa Theologia*.. Vol. 37. Gilby T. Translation. Justice. London: Blackfriars.
- _____ (1975). *Summa Theologia*.. Vol. 38. Lefebure M. Translation. Injustice. London: Blackfriars.
- Aristotle. *Ethica Nicomachea*. 최명관 역(2005).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서광사.
- Augustinus. A. *DE BEATA VITA*.. 박주영 역(2010). 『아우구스티누스 행복론』. 서울: 누멘.
- Augustinus. A. *De libero arbitrio*. 성염 역(1998). 『아우구스티누스 자유의지론』. 경북: 분도출판사. 교부문헌 총서(10).
- Augustinus. A. *La Citta di Dio*. 성염 역(2004). 『신국론 제1-10권』. 경북: 분도출판사. 교부문헌 총서(15).
- _____ . *La Citta di Dio*. 성염 역(2004). 『신국론 제11-18권』. 경북: 분도출판사. 교부 문헌 총서(16).
- _____ . *La Citta di Dio*. 성염 역(2004). 『신국론 제19-22권』. 경북: 분도출판사. 교부 문헌 총서(17).
- _____ . *Confessions*. 선한용 역(1990).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Brewer. A. (1992). *Richard Cantill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
- Friedman, D. (1980). In defence of Thomas Aquinas and the just price. in: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2(2). Summer. 234-242.
- Marx, K. (1984). *Das Kapital*. Buch I, II, III. Berlin.
- Mill, J. St. (2012). *Utilitarianism*. Textstream.
- Smith, A. (1937).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 Stark, W. (1952). *Jeremy Bentham's Economic Writings*. New York: Burt Franklin.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f Economic Ethics
by Augustine and Aquinas

Eui-So Hwang(University of Seoul)

Augustine and Aquinas had slight difference in their Christian views on the world, especially on human nature and relationship between soul and body. Their view shaped their distinctive theory in economic ethics. About human nature, Augustine argues that human soul can be perfected by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and thus, every economic actions of each individual always lead to overall balance in an economy. This view became the basis for the free market economy. However, Aquinas believed that humans can never be perfected, not even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God. This led to his theory that free market has limitation and state intervention is inevitable. About soul and body, Augustine argues that human soul and body is separated, and that soul is superior to the body. He thought that human ethics can only be recovered through close relationship of soul to God. Thus, spiritual recovery was closely related to human ethics. He argued that amount of capital did not have any impact on the soul, since the soul is superior to the state of the body. Aquinas argued that body and soul is not separated. Thus, the state of the body or economic situation can have impact on soul. He argued that recovery of human ethic requires both healing of body and soul, and individual wealth affects body, soul and thus ethics. Economic ethics play large part of forming human soul and body, which needs to be guided to restore the ethics in the society and soul of human being. Aquinas' point of view does not consider capitalism as being neutral or ethically correct. After all Augustine does not see relationship between the abundance of capital and corruption of souls, but Aquinas blames capital for corruption of souls.

Key words: Augustine, Aquinas, Economic Ethics, Human Nature, Soul and Body.